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28일 오전 서울역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그런 치욕 당했으면 나라도 ...”

‘DJ 추도사’ 정부 반대로 무산

盧前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2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전국 곳곳에서 추모 열기가 고조됐다.

이날 새벽까지 분향소에서 봉하마을 진입로 2km 구간에 6줄로 길게 늘어섰던 심야 추모행렬은 출근시간이 되면서 잠시 줄었다가 오전 9시를 넘기면서 다시 길어졌다.

상당수 추모객은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 경복궁으로 떠나기 전에 열리는 발인제를 지켜보려고 아예 봉하마을에서 밤을 새 생각으로 찾았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전날 누적 조문객 수가 78만4천여명에 달했고 해가 진 후 이날 새벽까지 추모행렬이 계속돼 서거 6일째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원한 남자로 여길 것”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이 느낀 치욕과 좌절감, 슬픔을 생각하면 나라도 그런 결단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부인 이희호 여사와 서울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 조문한 뒤 “세상이란 게 흐린 날도 있고 밝은 날도 있는데 견

야지, 용감한 사람이 못견디면 어떻게 하느냐는 심정도 있었지만...”이라며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 부인, 아들, 딸, 일가친척, 친지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짚고조사했다”며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뒤 20일이 지났는데 증거를 못 대는 게 말이 되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런 ‘시원한 남자’는 처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29일 엄수될 영결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추도사를 맡기려 했으나 정부 측이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고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8일 밝혔다. 천 전 수석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저희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추도사를 부탁드렸는데 정부에서 완강하게 반대해 결국 무산돼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 다”고 밝혔다.

권양숙 여사 첫 헌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28일 오전 7시20분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율회관 앞에 설치된 공식 분향소에 처음 나와 노 전 대통령의 영전에 헌화하고, 상주역할을 맡은 측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검정색 상복차림을 한 권 여사는 이어 조문

객과 자원봉사자들을 향해서도 2차례나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감사인사를 했다. 권 여사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날은 직접 걸어서 이동했다.

반기문 총장 맨하튼서 조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7일 오후(현지 시간)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뉴욕 맨해튼 한국 총영사관에 차려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머리를 숙였다.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반 총장은 분향소 입구에 놓인 방명록에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정 앞에 깊이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적은 뒤 “고 노 대통령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영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고 썼다.

○미국과 일본, 우즈베키스탄이 29일 국민장으로 치러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본국 인사를 조문사절로 파견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8일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알렉스 아비주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와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수,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우즈베키스탄의 사이고바 차관이 각각 조문사절로 방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영결식에 청용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를 조문사절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28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권양숙 여사가 헌화한 뒤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오래도록 당신이 많이 그리울겁니다

장 농림장관 “농업보조금 총액은 유지” 남악신도시 ‘전남개발빌딩’ 입주 시작

농가소득·생산성 향상에 전력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정부는 농업)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업 발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농업 보조금 개편은 폐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총액은 유지되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소·돼지에 대한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없애고 대신 소·돼지의 질병 근절,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장 장관은 “좋은 돼지를 생산했다고 10만원, 20만원을 주는 것보다 우리 돼지 산업이 안되는 게 질병 때문인데 질병을 없애는 데 투자해주는 게 낫다”며 “보조의 방향을 바꿔 농가소득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 조기 관세화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는 국제 쌀값의 향후 동향에 대해 “전체적인 곡물의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인구 증가와 바이오에탄올 등 연료용 수요 등에 따라 곡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전남개발공사 등 9개 기관

전남개발공사, 전남발전연구원, 전남도체육회 등 전남도 산하·유관기관 등이 입주할 무안군 남악신도시의 ‘전남개발빌딩’이 준공돼 입주가 본격화된다.

2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남개발빌딩은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으로 총 2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착공 2년여만에 최근 완공됐으며, 29일 전남개발공사 이전을 시작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전남개발공사는 다음달부터 새 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현재 광주에 있는 전남발전연구원은 다음달 3일 옮겨온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층에는 광주은행이 들어서고 7월 까지 SK텔레콤과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도체육회 등 현재 9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다음달 9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입주기관 대표, 시공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기관 합동 입주식’을 개최한다.

한편, 지난 2004년 6월 전남도가 전역 출자해 설립된 전남개발공사의 자산총액은 지난 2008년 12월말 현재 7천617억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방공사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촌 일손 돕기 앞선 창구 개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전남지역 각 지자체와 농협 등에 농촌일손돕기 앞선 창구가 개설, 운영된다.

전남도는 28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다음달 20일까지 농촌 일손돕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일손돕기 창구는 도청과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개설되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참여 희망 기관·단체·기업 등을 연결해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盧武鉉 前 대통령
 2009. 5. 29. (금) 14:00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백련스외 임직원일동